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82771

2020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시각장애학교 졸업생들의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 및 개선 방안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해 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각장애학교 졸업생들의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 및 개선 방안 조사

An Investigation of the Graduate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Riryo Rehabilitation Programs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202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해 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각장애학교 졸업생들의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 및 개선 방안 조사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해 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해미의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인)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 목차 ····· iv
ABSTRACT ····· v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Ⅱ. 이론적 배경 ····· 6
1. 이료교육의 역사 ····· 6
1) 일제 강점 제생원 맹아부 시기 ····· 6
2) 미군정 침·구·안마사 제도 폐지 시기 ····· 6
3) 정부수립 후 특수학교 교육과정 제정 이전 시기 ····· 7
4) 특수학교 교육과정 제정 이후 시기 ····· 8
5) 이료전공과의 설치와 이료교사 자격 제도 ····· 8
6) 이료재활전공과의 설치와 운영 ····· 9
2. 이료교과 교육과정 ····· 10
1) 제1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67) ····· 10
2) 제3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77) ····· 10
3)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83) ····· 11
4) 제6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89) ····· 11
5)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98) ····· 12
6) 2008년 특수학교 교육과정 ····· 12
7) 2012 부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 13
8)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 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현황 ····· 15
1) 학교별 전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 15
2) 학년별 전문교과 편제 ····· 15
3) 학교별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 ····· 16
4) 학교별 총 이수 단위 ····· 16
4. 선행연구 고찰 ····· 19

Ⅲ. 연구 방법 ····· 20
1. 연구 참여자 ····· 20
2. 연구 도구 ····· 25
3. 연구 절차 ····· 27
1) 예비조사 ····· 27
2) 본 조사 ····· 27
4. 자료 처리 ····· 28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 29
1.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 ····· 29
1) 기초재활교육 이수 ····· 29
2)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정보 습득 ····· 30
3) 이료교과 수업 ····· 31
4) 이료 교과서 ····· 32
5) 학습 및 평가 매체 ····· 34
6) 방과후 수업 ····· 35
7)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 37
8) 개방형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 39

2.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 40
1) 교육과정 ····· 4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기초재활 관련 과목 편성 ····· 42
3) 이료 교과서 ····· 45
4) 이료교과 수업 ····· 46
5) 평가 ····· 47
6) 개방형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 48

Ⅴ. 결론 및 제언 ····· 49
1. 결론 ····· 49
2. 제언 ····· 51

참고문헌 ····· 52

부록 1 설문지 ····· 56

부록 2 개방형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 6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Ⅱ-1> 학교별 전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 17
<표 Ⅱ-2> 학년별 전문교과 편제 ····· 17
<표 Ⅱ-3> 학교별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 ····· 18
<표 Ⅱ-4> 학교별 총 이수 단위 ····· 18
<표 Ⅲ-1> 전국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별 조사 참여 비율 ····· 22
<표 Ⅲ-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3
<표 Ⅲ-3> 연구 참여자의 시각장애 관련 정보 ····· 24
<표 Ⅲ-4> 설문지 구성 ····· 26
<표 Ⅳ-1> 기초재활교육 이수 여부 ····· 29
<표 Ⅳ-2> 기초재활교육 미이수 사유 ····· 30
<표 Ⅳ-3>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31
<표 Ⅳ-4> 이료 이론과목 수업 경험 ····· 32
<표 Ⅳ-5> 이료 실기과목 수업 경험 ····· 33
<표 Ⅳ-6> 이료 교과서의 내용 구성 ····· 34
<표 Ⅳ-7> 이료 교과서의 분량과 형식 ····· 34
<표 Ⅳ-8> 학습 매체 ····· 35
<표 Ⅳ-9> 시험 문제지 매체 ····· 35
<표 Ⅳ-10> 시험답지 매체 ····· 36
<표 Ⅳ-11> 방과후 수업 경험 유무 ····· 36
<표 Ⅳ-12> 외부 강사의 방과후 수업 ····· 37
<표 Ⅳ-13>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과 졸업 후 비교 ····· 38
<표 Ⅳ-14>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이 직업 선택에 미친 영향 ····· 38
<표 Ⅳ-15>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 39
<표 Ⅳ-16> 이료재활전공과 추천 의향 ····· 39
<표 Ⅳ-17>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타당성 ····· 41
<표 Ⅳ-18>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기간의 타당성 ····· 42
<표 Ⅳ-19> 이료교과의 과목 수와 시간 배당의 타당도 ····· 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0> 이료교과에 추가되기 바라는 과목 ····· 42
<표 Ⅳ-21> 이료재활전공과의 점자 과목 편성·운영 ····· 43
<표 Ⅳ-22> 이료재활전공과의 보행 과목 편성·운영 ····· 43
<표 Ⅳ-23> 이료재활전공과의 보조공학 과목 편성·운영 ····· 44
<표 Ⅳ-24> 이료재활전공과의 일상생활기술 과목 편성·운영 ····· 45
<표 Ⅳ-25> 이료 교과서 개발 시 우선 고려 사항 ····· 46
<표 Ⅳ-26> 이료 이론과목 수업 개선 사항 ····· 46
<표 Ⅳ-27> 이료 실기실습과목 수업 개선 사항 ····· 47
<표 Ⅳ-28>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할 이료실기실습 과목 ····· 47
<표 Ⅳ-29> 이료재활전공과 시험 개선 사항 ····· 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Graduate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Riryo Rehabilitation Programs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By Hae-Mi Lee
Advisor: Prof. Young-il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system and curriculum of riryo by investigating the graduates' experiences and opinions from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 total of 71 graduates from riryo rehabilitation programs of such special schools in the 2018 academic year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ch asked them by phone about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opinions on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riryo education at the special schools. Overall, the graduates were satisfied with the riryo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hought that the program had much influence on their current jobs. The graduates propos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improving riryo rahabilitation programs: (a) the development of riryo rehabilitation curriculum different from the curriculum for high school students; (b)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redit hours for practice-oriented subjects; © the expansion of the extended core curricular subjects (i.e., braille, orientation & mobility, daily living skills, and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riryo rehabilitation program; (d)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textbooks reflecting the needs of students with low vision; and (e) the wide use of models or devices for practical and concrete instruction in riryo subject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이료교육은 1913년 일본이 조선총독부 산하에 설치한 제생원 맹아부(현재 서울맹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의 이료교육은 시각장애인의 구휼 목적이 가장 컸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을 지니고 전문화를 강조하는 시대이며, 무한경쟁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의 발달,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회생활을 하던 성인들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중도 실명하게 된 후천성 시각장애인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업 찾기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료교육이 유일무이한 직업 분야로 차지하고 있다.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들에게 닥친 직업 중단 위험이나 구직 장벽은 당장 생계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이료교육은 정치·사회·문화·경제·역사 등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상충하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료교육이 직면한 도전은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료재활 교육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환(2001)은 시각장애학교 고등부 학생과 이료교사를 대상으로 이료교육 지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구자영(2002)은 이료재활과정 학생 19명과 이료교사를 대상으로 재활교육과 이료교과 교육의 실태와 이료교육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영미(2004)는 시각장애학교 전공과 학생의 학점은행제 이료전문학사 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애란(2004)은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7개교의 이료재활과정 재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중도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교육의 실태와 직업재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최계순(2007)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각장애학교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이료재활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이료재활과정을 수료한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의 기초재활교육의 실태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료재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태훈(2011)은 전국 9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기초재활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알아보았다. 박영준(2014)은 시각장애학생, 이료교사, 안마사 간의 이료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 연구하였다. 또 박영준(2015)은 시각장애학교 이료교육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로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이료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시각장애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이료교육 제도는 그동안 행정가들이나 교육자들이 주로 결정해 왔으나, 이제는 이료교육을 직접 받아본 학생들의 관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료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료교육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료교육 경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비해야 할 올바른 이료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이료교육 경험과 이료교육 개선 방안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료교육 제도와 이료교육과정 개선 방안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료재활전공과 이료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이료재활전공과 이료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료, 이료재활전공과, 기초재활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이료

이료(理療, Iryo)란, 일본에서 '이학요법(理學療法)'이라는 용어에서 전해진 것으로,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침·구·전기치료 등의 기타 자극요법을 말한다(오태민, 2010).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고등부 전문교과 Ⅲ에 해당하는 '이료' 교과를 총칭한다.

2) 이료재활전공과

이료재활전공과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도 시각장애인(persons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이 직업 재활을 위해 시각장애학교 고등부 이료교과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 설치된 2년제 과정이다. 이 과정의 설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56조, 제57조',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및 '의료법 제82조', '서울맹학교 학칙 제4조'이다(국립서울맹학교 규정집, 2019). 본 연구에서는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 설치된 이료재활전공과를 비롯하여 전국의 시각장애학교에 설치된 이료재활전공과를 말한다.

3) 기초재활교육

기초재활교육이란, 중도 시각장애인이 혼자 살아가기 위해 촉각이나 청각 등을 활용한 시각 대체 기술 훈련을 개인적응훈련(personal adjustment training), 맹적응훈련(blindness adaptive training), 독립생활기술(independent living services), 재활훈련(rehabilitation training)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재활교육 또는 재활훈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1972년 한국맹인재활센터에서 처음 시행된 후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가 설립되면서 1982년에 1년 과정으로 기초재활교육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4개월 과정으로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년에 2회 실시하고 있다. 그 이후부터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의 11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3~4개월 과정의 기초재활교육을 운영 중이다(김태훈,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료재활전공과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들을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과목으로 간주하여 기초재활교육이라고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1. 이료교육의 역사

1) 일제 강점 제생원 맹아부 시기

우리나라 시각장애 학생에게 처음 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구한말이지만 시각장애 학생에게 본격적으로 이료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다(김기창, 2004). 이때 제생원 맹아부가 안마술·침술·구술을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채택하여 가르쳤고,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제생원 맹아부 졸업생들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주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안수, 2010).

제생원은 태조 6년(1397) 의방의 조사와 수집, 의학서적의 간행, 약물의 조사와 채집 및 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제생원은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77호 전문 제8조의 「제생원 규정」을 공포하였고, 1913년 4월 11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41호 「조선총독부 제생원 규칙」을 제정하였다(김기창, 2004). 1914년 10월 29일에는 경무총감부령 제10호인 「안마술·침술·구술 영업취체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제생원 맹아부 졸업생에게 침사·구사·안마사 면허를 주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침·구·안마제도이다(임안수, 2010). 이 규정으로 보아 제생원은 시·청각장애 학생에게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할 목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공식 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시·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초등 6년, 중등 4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들의 식민지로서 초등 3년, 속성 1년의 단기 교육을 실시하였다(김기창, 2004).

2) 미군정 침·구·안마사 제도 폐지 시기

해방 이후 1945년 10월 1일 제생원 맹아부는 국립맹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일반 학생과 같은 교육 내용과 수준으로 6년제 초등교육으로 바꾸었고, 1947년에는 중등교육이 설치되었다(김기창, 2004). 일제 강점기에는 제생원 졸업생들이 자유롭게 침·구·안마 영업을 하거나 병원이나 안마원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1946년 4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군정청 후생부는 침·구·안마업의 시행령인 「안마술·침술·구술 영업취체규칙」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실제로도 시각장애인이 의료 분야에 진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제생원의 교육 연한이 6년제 초등교육에도 미치지 못하는 3년제였고, 침·구를 포함한 한의학을 열등한 의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립맹아학교에서는 침·구·안마 교육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졸업생에게 침·구·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임안수, 2010). 침·구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안마업은 일본인이 모두 돌아간 뒤에는 매우 침체되었다. 모든 안마원들은 폐업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침술이나 복술로 직업을 바꾸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악화, 정치적 혼란, 6·25전쟁 등으로 어려운 생활이 이어졌다(임안수, 2010).

3) 정부수립 후 특수학교 교육과정 제정 이전 시기

1949년 12월 26일 제정된 법률 제86호 「교육법」 제143조에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해 12월 31일에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에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맹아학교장은 1954년 사범과를 증설하여 이료교육을 실시하였다. 1947년 2월에는 국립맹아학교가 보건후생부 관할에서 문교부로 이관되었다. 1952년 국립맹아학교는 서울맹아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59년 1월 14일 맹아교육의 분리에 관한 대통령령의 공포로 동년 4월 1일에 서울맹학교와 서울농아학교가 완전 분리되었다. 그해 5월 서울맹학교는 학칙을 제정하여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 이료교육은 중등과와 사범과에서 실시되다가 1964년 이후 사범과 대신 고등과에서 실시되었다(김기창, 200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특수학교 교육과정 제정 이후 시기

1973년 2월 16일 비상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제2533호 개정 「의료법」 제62조 제3항으로 규정하였다. 보건사회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1973년 10월 31일에 부령 제428호인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칙 제1조에 안마사의 자격과 업무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9조 제1항에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전 유성 지역에서 기존의 안마원 원장들이 공동의 주주가 되어 합동 안마원을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고객 확보와 안마원 간 경쟁을 해소시켰고, 안마사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1968년 제일안마원 원장이었던 최용진은 '찾아가는 안마에서 찾아오는 안마'를 모토로 안마시술소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70년대 말까지 서울에만 13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12월에는 약 940개소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마시술소가 안마 시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매매와 병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때 기존의 시각장애인 침사·구사의 자격은 제외되고 안마사 자격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침사 자격 제도에 관한 투쟁도 계속 하게 되었다(박영준, 2014).

5) 이료전공과의 설치와 이료교사 자격 제도

1993년과 1994년 서울맹학교는 이료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년 과정의 전공과 교육을 2회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1995년 1월 27일 교육부로부터 3년제 이료전공과정을 인가받았다. 이료전공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56조',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서울맹학교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료전공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전문대학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학기의 수업 일수는 15주 이상으로 전공과목 90학점(전공필수 18학점 포함)과 교양과목 21학점 및 일반선택 9학점 등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이료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료전공과정의 수업 연한은 3년(6학기)으로 교육과정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에 따른다. 이료전공과정는 2016년 '이료재활과정'이 '이료재활전공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료전공과정 역시 '이료전문전공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국립서울맹학교 규정집, 2019).

한편 이료 과목은 시각장애학교 고등부의 교육과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료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교사자격증과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교사가 상치과목으로 이료 과목을 지도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1996년 시각장애학교 이료 과목 교사 양성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획으로 42명의 교사가 일정 기간 연수를 받고서 37명의 교사들이 이료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박영준, 2014).

6) 이료재활전공과의 설치와 운영

이료재활전공과는 2000년 12월 1일에 인가한 서울맹학교 학칙 제4조에 이료재활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제5조 제4항에 이료재활과정의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규정하였다. 제14조 제3항에는 이료재활과정의 보통교과는 전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규정하여 이료교과만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에는 고등부(이하 이료재활과정 포함)라고 규정하여 졸업 등의 모든 사항을 고등부와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2001년 1월 5일 '중도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조치(유특 81210-6)'로 현행 안마사 규칙에 의한 이료 시술 중 자극요법에 해당하는 3호침(침 굵기 0.25mm)이하의 시술은 시각장애학교 고등부를 졸업해야 할 수 있게 하였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중도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이료재활과정'이라고 하여 이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000년까지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편입하여 이료교육을 받으며 직업재활을 하였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교육부에서는 과령의 성인 시각장애인들을 학령기 학생들과 분리시켜 교육하기로 하였다(박영준, 2014). 그리하여 2001년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 처음으로 '이료재활과정'이 신설되었고, 그 후 2016년에 '이료재활과정'이 '이료재활전공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이료교과 교육과정

1) 제1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67)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1967년 4월 15일 문교부령 제181호로 제정된 교육과정령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통합되어 시각장애 교육과정과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으로 공포되었다. 이 시기는 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을 처음으로 반영하려고 시도한 교육과정이다. 교과활동은 일반교양을 높이기 위한 보통교과와 직업 기능과 소양 연마를 위한 직업교과로 편성하여 단위제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령에는 중등부의 이료 과목 및 시간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종전 서울맹학교 학칙으로 시행하였다. 즉, 1학년 때 해부 6시간, 실습 6시간, 2학년 때 생리 5시간, 안마학 1시간, 실습 6시간, 3학년 때 병리학 4시간, 위생학 2시간, 마사지학 1시간, 실습 6시간 등이었다. 고등부의 직업교과인 이료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통 과목은 의학사, 안마학, 해부학, 생리학, 침술이론, 마사지, 실습, 전기이론, 한방 등의 9과목(90단위)이고, 선택과목은 보행, 위생, 병리, 치료일반, 의사법규 등의 5과목(28단위) 총 14과목 118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김기창, 2004).

2) 제3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77)

1977년 2월 28일 문교부령 제404호로 개정·공포된 제3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은 이전의 주당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으로 표시하던 것을 연간 및 주간으로 고정하였다. 이 교육과정 역시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개정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은 시각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의 난이도, 과다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중등부에서의 이료교육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고등부에서만 실시하게 되었다. 고등부의 수업일수 및 총 이수 단위 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간 36주를 기준으로 하되, 1단위 50분을 단위시간으로 하였다(김기창, 200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83)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1983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3-13호로 개정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편제는 고등부는 보통교과를 공통필수와 과정별 선택으로 나누고, 이 과정을 인문 사회과정과 직업과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문교과도 이료와 기타로 간략히 하였다. 이 교육과정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가 국정교과서 편찬기관으로 지정받아 1985년에서 1986년까지 모든 이료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출판하였다. 또 19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는 의제 012254-1705 유권해석을 통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범위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각장애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한방 의료나 표방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유권해석으로 인해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시술을 하면서 자극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김기창, 2004).

4) 제6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89)

일반학교의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발맞춰 특수교육에 대한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문제점이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부터 줄기차게 지적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으로 문교부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에 개정 시안을 위탁하였다. 여러 번의 심의·보완 과정을 거쳐 1989년 12월 29일 문교부 고시 제89-10호로 제6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부의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 고등부 교육과정을 교과활동, 생활적응활동, 특별 활동, 학교재량시간으로 편성하고, 교과활동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직업 자립교육 차원에서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교과의 학교 특성화를 권장하기 위해 전문교과목의 단위 배당 재량권과 학교별 특설과목 설정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문교부는 이료 교과서 편찬 기관으로 서울맹학교를 지정하였다. 서울맹학교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해부·생리, 한방, 진단, 병리, 실기실습 등 5개 과목의 교과서를 편찬하였다(김기창, 200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98)

1998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8-11호로 고시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실제로는 제5차 개정이지만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차수에 맞추기 위하여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기로 하였다(김기창, 2004).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임안수, 2010).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사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기본 교육과정으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시각장애 학생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습하되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일상생활활동, 보행훈련, 점자, 컴퓨터 등 시각장애 특수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시각장애학교에서만 교육할 뿐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재학할 경우 일반교육만 받았다(임안수, 2010).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이료 과목은 직업교과 전문선택의 하나로 시각장애학교에 한하도록 하였다. 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서울맹학교를 다시 국정교과서 편찬기관으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0개의 이료 과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편찬하였다. 또 2004년부터 저시력 학생들을 위한 이료 교과서를 확대 문자로 보급하였다(김기창, 2004).

6) 2008년 특수학교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8년 2월 26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로 고시한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동안은 개정되어 온 순서에 따라 교육과정 명칭을 부여했다면, 이때부터는 개정·고시 연도에 따라 그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초 1～고 3),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초 1～고 1),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고 2～고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장애영역별로 학교형태와 장애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형을 구분하지 않고, 학습능력,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장애학교의 경우 보행훈련과 일상생활훈련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었다(임안수, 2010).

7) 2012 부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2 부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2008년 특수학교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특수학교 중심의 장애유형별 교육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으로 명명해 왔으나,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2012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로 고시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한 것이다. 2012년 시행 중이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이료는 전문교과 직업의 9개 과목 중 하나였고, 해부·생리, 병리, 안마·마사지·지압 등이 이료 과목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부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이료가 전문교과로 되었고,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 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실습이 각 과목으로 확대·개편되었다.

8)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재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료교과 교육과정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2015년 12월 1일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로 고시된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한 것이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세 유형의 교과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초·중등학교의 일반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전문교과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의 대안형 교육과정인 기본 교육과정이 있다. 그 중에 특수교육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교과 11개 과목과 이료교과 10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료교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교과 중 전문교과 Ⅲ으로 추가 편제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었으며, 직종 중심 교육과정에서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장애학생의 직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어 있다. 2015 개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에는 일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두고, 2011 선택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의 심화과목을 전문교과로 재배치하였다. 고등학교의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고 17회의 수업량을 의미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이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보통교과에서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직업, 이료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10단위 중에서 시수 5단위와 생활·교양 영역 필수 이수 단위 16단위 중에서 시수 4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고등학교의 총 이수 단위는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 180단위와 자율 편성 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의 24(408시간)단위를 합하여 204단위이다.

현행 이료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료교과의 보건과목과 실기실습과목의 명칭이 각각 이료보건, 이료실기실습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료교과는 총 10개 과목 3개의 과목군으로 되어 있다. 이료 기초 과목군인 해부·생리, 병리 및 이료보건은 이료에 필요한 기초 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료 이론과목군인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및 침구 과목은 수기요법 또는 자극요법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료임상 과목군인 이료임상, 진단, 이료실기실습은 이료의 기초 지식과 이론을 토대로 피술자의 피로 회복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도모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을 따른다. 또 직업교육 시수 확보를 위해 2015 개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자율 편성 단위를 활용하여 48단위인 공통 과목 이수 단위 이외의 필수 이수 단위 시수인 10단위를 전문교과 Ⅰ, Ⅱ, Ⅲ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덧붙여 직업, 이료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현장 실습을 관련 법령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현황

1) 학교별 전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이료재활전공과의 교육과정은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 중에 전문교과는 총 10개 과목으로 해부·생리, 병리, 이료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이료실기실습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국의 시각장애학교별 이료재활전공과의 전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표Ⅱ-1>과 같다. 학교별로 전문교과의 교과명이 '전문교과, 이론, 전문직업교과, 직업교과, 이료' 등 모두 달랐다. 시간 배당도 학교별로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교과의 총 이수 단위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빛맹학교, 대전맹학교, 충주성모학교에서는 전문교과 안에 컴퓨터, 직업과 자립, 직업실기실습의 과목들이 편제되어 있었다.

2) 학년별 전문교과 편제

학교별 이료재활전공과의 전문교과 편제는 학년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료재활전공과의 각 학년별 전문교과 편제는 <표Ⅱ-2>와 같다. 해부·생리와 한방, 이료실기실습은 모든 학교가 이료재활전공과 1학년에 편제를 하였고, 병리, 전기치료, 이료임상, 진단, 이료실기실습은 모든 학교의 2학년에 편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안마·마사지·지압, 침구, 이료보건 등은 학교별로 1학년 또는 2학년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충주성모학교에서만 유일하게 안마·마사지·지압과목이 2학년에 편제되어 있었다. 한빛맹학교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과목과 대전맹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과 자립과목은 1학년에만 편성되어 있고, 부산맹학교와 대구광명학교는 이료실기실습 과목들을 세분화하여 편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학교별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별로 매우 각양각색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각 학교별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는 <표 Ⅱ-3>과 같다.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교과명이 학교마다 일반교과, 이론, 교양교과, 보통교과, 재활, 직업 및 체육 등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과목 구성 또한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었다. 학교별로 기초재활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이 대부분 편제되어 있었으나, 청주맹학교에서는 기초재활과목이 전혀 편제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별 총 이수 단위와 각 과목별 시간 배당도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다.

4) 학교별 총 이수 단위

이료재활전공과의 총 이수 단위는 학교별로 모두 차이가 있었다. 각 학교별 총 이수 단위는 <표 Ⅱ-4>와 같다. 청주맹학교가 총 104단위로 단위 수가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한빛맹학교, 광주세광학교, 강원명진학교가 120단위, 부산맹학교, 인천혜광학교, 충주성모학교, 전북맹아학교가 124단위, 대구광명학교가 128단위, 서울맹학교가 132단위, 대전맹학교와 영암은광학교가 각각 136단위로 단위 수가 가장 높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Ⅱ-1> 학교별 전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학교		서울 맹학교	한빛 맹학교	부산 맹학교	대구 광명 학교	인천 혜광 학교	광주 세광 학교	대전 맹학교	강원 명진 학교	청주 맹학교	충주 성모 학교	전북 맹아 학교	영암 은광 학교
교과명		전문 교과	이론	전문 직업 교과	전문 교과	이론	직업 교과	전문 교과	전문 교과	전문 교과	전문 교과	전문 직업 교과	이료
과목	해부·생리	8	7	7	6	7	7	6	8	6	5	6	6
	병리	2	2	3	2	2	3	2	2	2	2	2	3
	이료보건	1	2	2	1	1	1	2	2	2	1	1	2
	안마·마사지·지압	2	2	2	2	2	2	2	2	2	1	2	2
	전기치료	2	2	3	2	2	2	2	2	3	2	2	2
	한방	3	4	3	3	3	3	3	4	3	5	4	3
	침구	3	2	3	2	2	2	4	3	2	5	2	2
	이료임상	6	6	5	4	4	6	4	8	4	5	5	5
	진단	2	2	3	2	1	2	3	3	2	2	2	2
	실기실습	14	14/16	13/10	12/14	12/16	10	11/13	10	14/12	16/8	10/12	13
	-	-	컴퓨터 1	-	-	-	-	직업과 자립 2	-	-	직업 실기실습 3/2	-	-
계		114	120	108	100	104	96	108	108	104	104	96	106

* '/'는 학기별 주당 배당 시간을 나타낸다. 즉, '/' 왼편이 1학기, '/' 오른편이 2학기이다.
* 대전맹학교의 '직업과 자립' 과목은 1학년에만 배당되어 있다.
* 충주성모학교의 '한방'과 '침구' 과목은 각 각 1학년 1학기에 5시간, 1학년 2학기에 5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표 Ⅱ-2> 학년별 전문교과 편제

학교		서울 맹학교	한빛 맹학교	부산 맹학교	대구 광명 학교	인천 혜광 학교	광주 세광 학교	대전 맹학교	강원 명진 학교	청주 맹학교	충주 성모 학교	전북 맹아 학교	영암 은광 학교
학년													
과목	해부·생리	1	1	1	1	1	1	1	1	1	1	1	1
	병리	2	2	2	2	2	2	2	2	2	2	2	2
	이료보건	1	1	1	2	1	2	1	2	2	2	2	2
	안마·마사지·지압	1	1	1	1	1	1	1	1	1	2	1	1
	전기치료	2	2	2	2	2	2	2	2	2	2	2	2
	한방	1	1	1	1	1	1	1	1	1	1	1	1
	침구	2	1	2	1	1	1	2	1	1	1	1	1
	이료임상	2	2	2	2	2	2	2	2	2	2	2	2
	진단	2	2	2	2	2	2	2	2	2	2	2	2
	이료실기실습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	컴퓨터 1	안마실습 수기실습 침구실습/ 임상실습 I 임상실습 II	안마실습 침구실습/ 안마지실습 침구실습 이료임상실습	-	-	직업과 자립 1	-	-	직업 실기실습	-	-

<표 Ⅱ-3> 학교별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

학교	서울 맹학교	한빛 맹학교	부산 맹학교	대구 광명학교	인천 혜광학교	광주 세광학교	대전 맹학교	강원 명진학교	청주 맹학교	충주 성모학교	전북 맹아학교	영암 은광학교
교과명	일반 교과	이론	교양 교과	보통 교과	교양 교과	재활	교양 교과 창체	보통 교과	-	교양 교과 창체	보통 교과 창체	창체 직업 체육
과목	점자	컴퓨터	점자	재활과 복지	기초 재활	점자	정보	점자	-	체육	점자 교육	특색 점자 특색 보행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재활과 복지			컴퓨터와 생활 I / II		보행				정보	보행 교육	진로 활동
	생활 체육		보조 공학	체육 I / II	건강과 생활	컴퓨터	체육			자율 활동 재활	보조 공학	직업 준비
	직업 윤리		스포츠·여가	동아리 활동	직업 윤리	체육	음악	보행		자율 활동 기타	체육	정보 처리
	정보		담임 재량	진로 활동	자율	운동 요법	창체	정보		동아리 활동	창체	운동과 건강생활
계	18	2	16	28	20	24	28	12	-	30	28	30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줄여서 표 안에 '창체'라고 표기하였다.
* 보통교과와 창체의 구분은 '실선'과 '점선'으로 하였다.

<표 Ⅱ-4> 학교별 총 이수 단위

학교	서울 맹학교	한빛 맹학교	부산 맹학교	대구 광명학교	인천 혜광학교	광주 세광학교	대전 맹학교	강원 명진학교	청주 맹학교	충주 성모학교	전북 맹아학교	영암 은광학교
총 이수 단위	132	120	124	128	124	120	136	120	104	124	124	1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선행연구 고찰

구자영(2002)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 19명과 이료 담당교사에게 재활교육과 이료교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의 이료교육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김기창(2004)은 현행 이료교육과 이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료교육의 성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료 관련 제도와 직업을 파악하였다. 현행 이료교육과정의 적정성, 이료교육과 진로 지도, 이료재활과정의 운영, 이료교육의 전문화 제고, 이료교사 자격 제도의 발전 방향, 안마사의 근무 조건과 안마업에 대한 긍지, 안마사 제도의 발전 방향, 안마업과 시각장애인의 유보 직종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애란(2004)은 이료재활과정에 재학 중인 중도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교육의 실태와 직업재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출현율을 정밀하게 확대·조사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강한 재활 의지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장애인 홍보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다양한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장된 직업 재활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중도 시각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 전문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권인희(2005)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제도와 직업 선택 자유의 충돌 여부를 다원적 각도에서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 합헌성을 규명하고 현행 안마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마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정규 대학 설립, 안마사 자격 제도의 이원화, 안마사 업무 범위의 조정, 안마사 관련 법령 상향 조정 등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정용춘(2005)은 중도 실명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료교사 양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료교육은 제도적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료 전문 교사가 없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 이료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별도의 제도 없이 단순 특수교사만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전문 이료교사의 양성을 위한 이료대학을 설립한다. 둘째, 대학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로 사범대 특수교육에 진학한 학생 중 이료교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에 과목을 개설하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 대학에서 이료 전문 교사를 양성한다. 셋째, 이료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소정의 과정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료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넷째, 이료에 임상과 경력을 소지한 비장애인 교사를 초빙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일(2006)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료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료교육 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 이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료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시각장애학교 고등부를 일반계열로 전환, 3년 과정 시각장애학교 전공과에서 안마사와 안마침사를 양성, 시각장애인 기술대학교를 설립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영준(2014)은 이료교육 제도 및 안마업과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인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료교육 제도의 발전과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이료교육 제도에서는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안마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경영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인식에 대해 세 집단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시각장애학교 12개교의 이료재활전공과 2019년 졸업생이었다. 2019년 2월 기준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은 총 104명이었다. 모든 졸업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총 104명 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졸업생은 73명이었고, 전화 조사에 최종적으로 응답한 졸업생은 71명(68.3%)이었다. 학교별 졸업생 수와 연구 참여자 수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전국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별 조사 참여 비율

학교명	졸업자 수(명)	참여자 수(명)	참여 비율(%)
서울맹학교	28	20	71.4
한빛맹학교	3	3	100
부산맹학교	8	7	87.5
대구광명학교	10	9	90.0
인천혜광학교	11	8	72.7
광주세광학교	8	3	37.5
대전맹학교	11	2	18.2
강원명진학교	9	4	44.4
청주맹학교	5	5	100
충주성모학교	1	1	100
전북맹아학교	4	3	75.0
영암은광학교	6	6	100
계	104	71	68.3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73.2%이고 여자가 26.8%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훨씬 많았다. 연령대의 순위를 보면 40대 35.2%, 50대 22.5%, 30대 16.9%, 20대 15.5%, 60대 9.9%로써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52.1%, 4년제 대학교 졸업 22.5%, 2년제 대학 졸업 18.3%, 대학원 이상 졸업 7.0%로 과반수가 고등학교 졸업이다. 이는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안마원 25.4%, 헬스키퍼 20.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15.5%, 기타와 진학 및 미취업 각각 14.1%, 안마시술소 8.5%로 과거와는 달리 안마원,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등에 많이 취업하였다.

<표 Ⅲ-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71)

변인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장애정도	심한 장애 (기존의 1~3급)	55	77.5	-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의 4~6급)	16	22.5	-
주로 사용하는 감각	시각(저시력인)	28	39.4	-
	청각이나 촉각(맹인)	43	60.6	-
장애 발생 시기	10대 이전	29	40.9	-
	20대	10	14.1	-
	30대	16	22.5	-
	40대	13	18.3	-
	50대 이후	3	4.2	-
장애등록 소요 기간	1년 미만	22	31.0	-
	1~3년 미만	9	12.7	-
	3~5년 미만	6	8.5	-
	5~10년 미만	6	8.5	-
	10년 이상	28	39.4	-
	계	71	100	-
직업	안마시술소	6	8.5	7.6
	안마원	18	25.4	22.7
	헬스키퍼	14	20.0	17.7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11	15.5	13.9
	기타 직종 취업	10	14.1	12.7
	진학	10	14.1	12.7
	미취업	10	14.1	12.7
	계	79	111.7	100.0

연구 참여자의 시각장애 관련 특성은 <표 Ⅲ-3>과 같다. 2019년 7월 이후 과거의 장애등급제가 부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과거 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구분할 때 장애 정도가 심한 졸업생이 77.5%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심하지 않은 졸업생이 22.5%였다. 청각이나 촉각을 주로 사용한다는 맹인이 60.6%였고, 시각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저시력인이 39.4%였다. 장애 정도가 심한 졸업생이 주로 맹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심하지 않은 졸업생이 주로 저시력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한 졸업생 일부가 저시력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장애 발생 시기를 보면 10대 이전이 40.8%로 가장 많았고, 30대 22.5%, 40대 18.3%, 20대 14.3% 등의 순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수가 40대와 50대였지만 시각장애 발생 시기는 10대 이전이 다수였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10년 이상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시각장애가 발생했지만 장애등록을 곧바로 하지 않고 상당 기간 주저하였음을 시사한다.

<표 Ⅲ-3> 연구 참여자의 시각장애 관련 정보 (N = 71)

변인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장애정도	심한 장애 (기존의 1~3급)	55	77.5	-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의 4~6급)	16	22.5	-
주로 사용하는 감각	시각(저시력인)	28	39.4	-
	청각이나 촉각(맹인)	43	60.6	-
장애 발생 시기	10대 이전	29	40.8	-
	20대	10	14.1	-
	30대	16	22.5	-
	40대	13	18.3	-
	50대 이후	3	4.2	-
장애등록 소요 기간	1년 미만	22	31.0	-
	1~3년 미만	9	12.7	-
	3~5년 미만	6	8.5	-
	5~10년 미만	6	8.5	-
	10년 이상	28	39.4	-
	계	71	100.0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업	안마시술소	6	8.5	7.6
	안마원	18	25.4	22.8
	헬스키퍼	14	20.0	17.7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11	15.5	13.9
	기타 직종 취업	10	14.1	12.7
	진학	10	14.1	12.7
	미취업	10	14.1	12.7
	계	79	111.7	1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다. 이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참여자에 관한 기초 사항에 대한 문항 8개,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에 대한 문항 16개 및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문항 14개 등 총 38개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을 제시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참여자 배경정보	- 성별 - 연령 - 학력 - 취업 형태 - 시각장애 정도 - 주로 사용하는 감각 - 시각장애 발생 시기 - 장애등록 경과 기간	8
이료재활 전공과 교육 경험	- 기초재활 교육 - 이료재활전공과 인지 경위 - 이료교과 수업 - 이료 교과서 - 학습 및 평가 매체 - 방과후 수업 - 전공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 전공과 재학 기간 중 가장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16
이료재활 전공과 교육의 개선 방안	- 교육과정 - 기초재활 과목 편성·운영 - 이료 교과서 - 이료교과 수업 - 평가	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폐쇄형은 다시 단일 응답형과 복수 응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료재활전공과에 재학하는 동안 가장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료재활전공과의 기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질문 내용에 따라 응답 형식을 달리한 것은 동일한 응답 형태를 반복적으로 응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기계적인 응답 패턴을 방지하고 보다 진실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함께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각장애학교의 이료재활전공과 교사 2명의 검토를 추가로 받았다. 교사 1의 의견에 따라 점자, 보행, 보조공학, 일상생활 등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영역별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교사 1의 의견과는 달리 문항을 5점 평정척도로 구성하는 대신 단일 응답형 또는 복수 응답형 형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교사 2는 시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에 관한 문항과 기초재활 과목의 현황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최종 설문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교사 2명은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에 대해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연구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료재활전공과에서 이료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김기창(2004), 권인희(2005), 김영일(2006), 박영준(2014)의 논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특수교육전공 교수 1인과 협의 아래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전문가 검토를 받은 설문지의 타당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2017학년도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 2명, 2018학년도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 1명, 2019학년도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 1명에게 연구자가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을 전화통화로 설명하였고 응답 동의를 얻었다. 예비조사는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을 읽어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이 모두 끝난 후에는 각 문항별 응답 난이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졸업생들은 모두 각 문항별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문항별로 복수 선택이 많으며, 간혹 응답하기가 애매한 문항이 있다고 하였다. 이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전공 교수와 협의 후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2) 본 조사

연구자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시각장애학교별로 2019년 2월 졸업생을 찾아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같은 학교 동료 졸업생들을 모집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이료재활전공과 2019학년도 졸업생 104명 중 73명의 동의를 얻었고,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본 조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조사원 2명을 섭외하였고, 조사원에게 연구 참여자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또한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조사 시 유의 사항 등을 위주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참여자 개인별로 전화를 걸어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설문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 1은 참여자 5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원 2는 참여자 2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빈도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문항의 응답 형태가 단일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일 경우 사례비율만 산출하였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사례백분율과 반응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사례백분율은 참여자 수 71을 기준으로 응답별 빈도의 백분율을 계산한 결과이고, 반응백분율은 총 반응 수를 기준으로 각 반응의 백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개방형 문항은 연구자가 응답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

1) 기초재활교육 이수

기초재활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이료재활전공과에 입학하기 전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 보행등에 관한 기초재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6.3%였고,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6.3%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들의 과반수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초재활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 직업재활을 위한 이료재할전공과에 입학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 기초재활교육 이수 여부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31	43.7
아니오	40	56.3
계	71	100.0

이료재활전공과에 입학하기 전 기초재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기초재활 교육을 받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 기초재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 응답자가 15명으로 28.0%였다. 또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기초재활 교육을 거부하였다'는 응답도 15%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 기초재활교육 미이수 사유 (N = 71)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기존에 하고 있던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받을 수 없었다	15	21.1	27.8
나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기초재활 교육을 거부하였다	8	11.3	14.8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 기초재활 교육의 운영 방식이나 자신에게는 맞지 않았다	2	2.8	3.7
독학으로 터득하여 기초재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4	5.6	7.4
기초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19	26.8	35.2
기초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혼자 받으러 갈 수 없었다	1	1.4	1.8
기타	5	7.0	9.3
계	54	76.0	100.0

2)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정보 습득

시각장애학교의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가족, 친척 또는 지인’이라고 응답한 연구참여자가 53.5%로 과반수였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관’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2.4%였다.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안과를 통해 시각장애학교의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참여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표 Ⅳ-3>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주민 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	2	2.8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23	32.4
가족, 친척 또는 지인	38	53.5
대중매체(방송이나 신문 등) 또는 온라인 매체(인터넷, 유튜브)	3	4.2
안과병원 등 의료기관	0	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타	5	7.0
계	71	100.0

3) 이료교과 수업

본 연구에서는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이료교과 수업 경험을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료교과의 이론과목은 해부·생리, 병리, 이료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침구, 한방, 이료진단, 이료임상이며, 실기과목은 이료실기실습이다.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의 수업에 대한 경험은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이료교과 이론과목의 수업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료 분야의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교사의 임상 경험담 형식의 수업이었다'라는 응답은 52.1%, '교과서를 모두 읽어주는 방식의 수업이었다'라는 응답은 45.1%, '다양한 기자재와 교구를 적절하게 활용한 수업이었다'라는 응답은 43.7%, '이료 용어의 풀이와 내용 요약 방식의 수업이었다'라는 응답은 18.3%였다. 이료교과 이론과목의 수업을 단일의 경험으로 국한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도록 제시한 문항이었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응답을 하였다.

<표 Ⅳ-4> 이료 이론과목 수업 경험 (N = 71)

구분	빈도 (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이료 분야의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교사의 임상 경험담 형식의 수업이었다	37	52.1	32
교과서를 모두 읽어주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32	45.1	28
다양한 기자재와 교구를 적절하게 활용한 수업이었다	31	43.7	27
이료 용어의 풀이와 내용 요약 방식의 수업이었다	13	18.3	11
기타	3	4.2	3
계	116	163.4	101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이료 실기과목의 수업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이 문항도 이론과목 수업 경험에 관한 문항과 같이 두 가지 이상 응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과목 수업 경험 문항과 마찬가지로 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과목 수업 경험 문항에서도 대부분 두 가지 응답을 선택하였다.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체 증상별 보건 위주의 수업이었다'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학교 시험 평가에 맞춰진 전통 안마 방식의 술식 위주의 수업'과 '수기요법에서 기본기만 반복하는 수업이었다'라고 한 응답이 각각 39.4%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수기 위주에 초점을 둔 수업이었다'라고 한 응답은 32.4%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보면 이료재활전공과의 이료 실기과목 수업이 대체로 전통 안마 방식의 술식 위주의 수업이거나 기본기만 반복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5> 이료 실기과목 수업 경험 (N = 71)

구분	빈도 (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체 증상별 보건 위주의 수업이었다	32	45.1	28
학교 시험 평가에 맞춰진 전통 안마 방식의 술식 위주의 수업이었다	28	39.4	25
다양한 유형의 수기 위주에 초점을 둔 수업이었다	23	32.4	20
수기요법에서 기본기만 반복하는 수업이었다	28	39.4	25
기타	3	4.2	3
계	114	160.5	101

4) 이료 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료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형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료 교과서는 이료재활전공과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가 아닌 2015~2016학년도 국립특수교육원이 고등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이료 교과서를 이료재활전공과 학생들도 사용하고 있다. 이료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이 문항은 교과서의 내용 선정 면에서 안마사에게 필요한 내용인가의 여부와 내용 기술 방식 면에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의 두 기준을 조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내용 선정 면에서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다'라고 한 응답이 '안마사에게 필요 없는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다'라고 한 응답보다 많았다. 교과서 내용 이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준면에서는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라고 한 응답은 47.9%였고,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였다'라는 응답은 31.8%였다.

<표 Ⅳ-6> 이료 교과서의 내용 구성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34	47.9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지만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였다	22	31.0
안마사에게 필요 없는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3	4.2
안마사에게 필요 없는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고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였다	5	7.0
기타	7	9.8
계	71	100.0

이료 교과서의 분량과 형식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조사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분량이 적절했다'는 의견은 49.3%였는데 비해 '분량이 너무 많았다'고 응답자들도 40.8%나 되었다. '형식면에서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는 의견이 39.4%인데 비해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50.7%였다. 향후 이료 교과서 개발 시 분량도 고려하여야겠지만 편집 면에서 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7> 이료 교과서의 분량과 형식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분량이 적절했고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었다	16	22.5
분량은 적절했지만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었다	19	26.8
분량이 너무 많았지만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었다	12	16.9
분량이 너무 많았고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었다	17	23.9
기타	7	9.8
계	71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학습 및 평가 매체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의 정도가 다른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이 학습과 평가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 문자 매체를 조사하였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각의 정도에 따라 일반문자, 확대문자, 점자, 음성 매체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한다. 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들 중에도 저시력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문자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확대경이나 확대 독서기와 같은 저시력 기구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료 과목을 학습할 때 주로 사용한 학습 매체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컴퓨터, 책마루, 녹음기, 대독 등 '음성 매체를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40.8%로 가장 많았고, '확대글자 또는 저시력 기구를 활용한 일반문자'가 35.2%였다. '일반문자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2.7%였고, '점자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9.9%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졸업생들의 77.5%가 시각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었고, 일반문자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12.7%에 불과한데도 점자를 학습에 주로 사용하는 졸업생들의 비율이 9.9%였다는 점은 기초재활교육으로 이료재활전공과 학생들이 점자를 학습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8> 학습 매체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점자	7	9.9
음성(컴퓨터, 책마루, 녹음기, 대독 등)	29	40.8
일반문자	9	12.7
확대글자 또는 저시력 기구(확대경, 독서확대기 등)을 사용한 일반문자	25	35.2
기타	1	1.4
계	71	100.0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지를 어떤 문자 매체로 제공받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대독이라는 응답이 38%, 확대문자라는 응답이 38%였다. 점자는 12.8%, 일반문자라는 응답은 11.3%였다. 학습 매체와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지의 매체도 음성과 확대문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9> 시험 문제지 매체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점자	9	12.7
대독	27	38.0
일반문자	8	11.3
확대문자	27	38.0
계	71	100.0

이료재활전공과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답지 작성 매체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시험답지를 일반문자로 작성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점자로 작성한다는 응답이 32.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답을 대필한다는 응답은 16.9%였고, 확대문자로 작성한다는 응답은 14.1%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시험 문제지 매체와 답지 매체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문제지의 매체는 대독과 확대문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답지 작성 매체는 일반문자와 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시험답지 매체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점자	23	32.4
대필	12	16.9
일반문자	26	36.6
확대문자	10	14.1
계	71	100.0

6) 방과후 수업

본 연구에서는 이료와 관련된 외부 강사들의 방과후 수업 경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외부 강사의 방과후 수업과 이료교사의 수업을 비교하는 문항도 제시하였다. 외부 강사의 방과후 수업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방과후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4.8%였고, '받은 경험이 없다'는 35.2%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11> 방과후 수업 경험 유무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46	64.8
아니오	25	35.2
계	71	100.0

외부 강사의 방과후 수업과 이료교사의 정식 수업을 비교하도록 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이료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 유익했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63.6%로 과반수였고, 그 밖의 응답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Ⅳ-12> 외부 강사의 방과후 수업 (N = 71)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외부 강사의 수업 내용이 이료교육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같았다	6	10.9	11
외부 강사의 수업 방식이 시각을 많이 필요로 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2	3.6	4
이료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 유익하였다	35	63.6	64
외부 강사가 다루는 내용 수준이 높아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3	5.5	5
이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는 것 같았다	5	9.1	9
기타	4	7.3	7
계	55	109.0	100.0

7)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이료교육에 대한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여러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과 비교해 졸업 후 달라진 점, 현재의 취업에 미친 이료교육의 영향,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만족도,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에게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권유 정도 등을 통해 졸업생들의 이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과 졸업 후를 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할 때 달라진 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49.3%로 가장 많았고, '이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는 응답도 46.5%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료교육이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료 관련 직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자존감을 회복하였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35.2%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인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졸업생들도 32.4%나 되었다. 이는 이료교육이 중도 시각장애인의 자존감 고양과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Ⅳ-13>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과 졸업 후 비교 (N = 71)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5	49.3	26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	12	16.9	9
이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	33	46.5	25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자존감을 회복하였다	25	35.2	19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23	32.4	17
기타	6	8.4	4
계	134	188.7	100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이 현재의 취업에 미친 영향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매우 많이 주었다'는 응답이 40.8%, '어느 정도 주었다'는 응답이 26.8%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이료교육이 현재의 취업에 어느 정도 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Ⅳ-14>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이 직업 선택에 미친 영향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주지 않았다	0	0.0
약간 주었다	5	7.0
보통이다	14	19.7
어느 정도 주었다	19	26.8
매우 많이 주었다	29	40.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타	4	5.6
계	71	100.0

* 기타(미취업)

이료재활전공과의 이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0.8%이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5.5%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과반수가 이료교육에 대해 만족하였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16.9%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1.4%이다.

<표 Ⅳ-15>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1.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2	16.9
보통이다	18	25.4
만족하는 편이다	29	40.8
매우 만족한다	11	15.5
계	71	100.0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에게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권유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그렇다'라고 한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라고 한 응답이 39.4%였다. 졸업생들의 84.5%가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에게 이료재활전공과 입학을 권유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생들이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16> 이료재활전공과 추천 의향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4.2
그렇지 않다	3	4.2
보통이다	5	7.0
그렇다	32	45.1
매우 그렇다	28	39.4
계	71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8) 개방형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료교육을 받는 동안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은 <부록 2> Ⅱ-15와 Ⅱ-16에 제시하였다.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한 졸업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과 졸업 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매우 유사하였다. 안마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이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점이 좋았다고 여러 졸업생이 응답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에 대해 수용하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들도 다수였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 것을 좋았던 점이라고 한 졸업생들도 있었다. 이료재활전공과 재학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학업 자체, 인간관계, 등하교 및 생활 형편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 점, 시력 저하로 인해 문자 매체를 새로 익혀야 한 점, 실기 수업 시 자세하게 보지 못한 점 등 이료 수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졸업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입학 당시에 비해 졸업할 때까지 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힘들었다고 응답한 졸업생들도 있었다. 인간관계, 특히 연령대가 다른 졸업생들 간의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졸업생들도 여러 명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본 연구에서는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타당성, 전공과 수업 연한, 이료교과의 과목 편성과 시간 배당, 추가할 과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시각장애학교에서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전문교과III(이료)을 이료재활전공과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교육 수혜자인 졸업생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조사한 것이다. 이료재활전공과에 고등학교 이료교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고등학교 이료교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31.0%이고, '매우 적절하다'가 1.4%이다. 이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19.7%이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4.1%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이료교과 교육과정을 이료재활전공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3.8%로 32.4%의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이료교과 교육과정과는 차별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Ⅳ-17>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타당성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적절하지 않다	10	14.1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4	19.7
보통이다	24	33.8
적절한 편이다	22	31.0
매우 적절하다	1	1.4
계	71	100.0

이료재활전공과 수업 연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현재와 같이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써 과반수였다. '이료재활전공과 수업 연한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31.0%,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7.0%,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4.2%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은 이료교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간을 다소 짧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재활이 시급한 과령의 학생들인지라 너무 긴 교육 기간 역시 재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는 위 교육과정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료재활전공과는 이료교육 기간도 중도 시각장애인에게 맞춘 별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18>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기간의 타당성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1년으로 줄여야 한다	3	4.20
2년을 유지해야 한다	41	57.7
3년으로 늘려야 한다	22	31.0
4년으로 늘려야 한다	5	7.0
계	71	100.0

이료교과 과목 구성 및 단위 배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실기과목 수와 단위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가장 많았고, ‘이론과목 수와 단위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2.5%였다. 이에 비해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수와 단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은 16.9%이고, ‘이론과목 수와 단위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6.9%, ‘실기과목과 단위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8%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과목보다는 실기실습에 더 치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료교육에서 이론과목은 학교에서 단순히 평가의 목적으로만 쓰일 뿐 실제 일터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 Ⅳ-19> 이료교과의 과목 수와 시간 배당의 타당도 (N = 71)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이론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줄여야 한다	12	16.9	12.0
실기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줄여야 한다	2	2.8	2.0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12	16.9	12.0
이론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늘려야 한다	16	22.5	16.0
실기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늘려야 한다	55	77.5	57.0
계	97	136.6	99.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료교과에 추가되기 바라는 과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안마원 창업 및 경영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세계 마사지 실습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도 52.1%였다. '환자심리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2%였고, '이료 관련 외국어 회화를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 조사 결과로 볼 때 현재 직업교육으로 편성된 이료교과 과목과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이 바라는 이료교과 과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이료교과 교육과정의 이료 과목은 이료 이론과목들이 주를 이루는데 반해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들이 추가되길 바랐다.

<표 Ⅳ-20> 이료교과에 추가되기 바라는 과목 (N = 71)

구분	빈도(명)	사례 백분율(%)	반응 백분율(%)
이료 관련 외국어 회화	4	5.6	4.0
안마원 창업 및 경영	38	53.5	34.0
환자심리	25	35.2	23.0
세계 마사지 실습	37	52.1	33.0
기타	7	9.8	6.0
계	111	156.2	100.0

2)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기초재활 관련 과목 편성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 기초재활교육을 이수한 연구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적었다. 기초재활교육은 점자, 보행, 보조공학, 일상생활기술 등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당면한 문자, 이동, 생활상의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구성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에 점자, 보행, 보조공학 및 일상생활기술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점자 과목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은 50.7%였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은 35.2%였으며,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은 14.1%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1> 이료재활전공과의 점자 과목 편성·운영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4	5.6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6	8.5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25	35.2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27	38.0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9	12.7
계	71	100.0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보행 과목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보행 과목 편성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2.1%였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33.8%이며,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14.1%였다.

<표 Ⅳ-22> 이료재활전공과의 보행 과목 편성·운영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6	8.5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4	5.6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24	33.8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24	33.8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13	18.3
계	71	100.0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보조공학 과목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보조공학 과목 편성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0.5%였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33.8%,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5.6%였다.

<표 Ⅳ-23> 이료재활전공과의 보조공학 과목 편성·운영 조사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2	2.8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2	2.8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24	33.8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29	40.8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14	19.7
계	71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일상생활기술 과목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일상생활기술 과목 편성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4.9%이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50.7%,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14.1%이다.

<표 Ⅳ-24> 이료재활전공과의 일상생활기술 과목 편성·운영 조사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4	5.6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6	8.5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36	50.7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14	19.7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11	15.5
계	71	100.0

이 조사 결과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에 점자, 보행, 보조공학 및 일상생활기술 등 기초재활교육 관련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데 대부분 찬성하였다. 주목할 점은 점자, 보행 및 보조공학 편성·운영에 대한 찬성 비율이 일상생활기술 편성·운영에 대한 찬성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료 과목 학습을 하기에 앞서 학습과 관련된 기초재활교육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교육받기를 원한다.

3) 이료 교과서

앞으로 이료 교과서를 새로 개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교과서의 내용 선정, 이해도, 교과서의 분량 및 형식이라는 네 요소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맹과 저시력 등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제작·보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응답은 이료 교과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교과서가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다는 응답과도 관련이 있다. '이료 실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8.2%,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22.5%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료 교과서의 편집형식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내용선정과 설명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비해, 교과서의 분량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이료재활전공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이료 교과서를 따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표 Ⅳ-25> 이료 교과서 개발 시 우선 고려 사항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이료 실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20	28.2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6	22.5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	4	5.6
전맹과 저시력 등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제작·보급해야 한다	31	43.7
계	71	100.0

4) 이료교과 수업

본 연구에서는 이료교과 수업 개선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료교과의 이론과목 수업과 실기과목 수업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실기과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실기 유형별 수업 비중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이론과목 수업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모형 자료나 기기 등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해 주는 수업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과목 수업이 모형 등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해주는 수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6> 이료 이론과목 수업 개선 사항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해 주는 수업	30	42.3
과목별 동일한 교사의 배치로 통일성 있는 수업	0	0.0
모형 자료나 기기 등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는 수업	35	49.3
의학 관련 참고서적보다는 이료 교과서 중심의 수업	2	2.8
기타	4	5.6
계	71	100.0

이료 실기과목 수업의 개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수기요법 기본기 중심의 수업'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9.6%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여러 유형의 수기 위주의 수업'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25.4%였다.

<표 Ⅳ-27> 이료 실기과목 수업 개선 사항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여러 유형의 수기 위주의 수업	18	25.4
수기요법 기본기 중심의 수업	21	29.6
교사의 평가 또는 학교 시험에 맞춰진 수기 중심의 수업	2	2.8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 위주의 수업	30	42.3
기타	0	0.0
계	71	100.0

실기실습 수업 중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할 이료실기실습 과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8>과 같다. '안마실습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고, '이료임상실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6%였다.' 침구, 마사지 및 지압실습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8>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할 이료실기실습 과목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이료임상실습	21	29.6
침구실습	3	4.2
안마실습	44	62.0
마사지실습	2	2.8
지압실습	0	0.0
기타	1	1.4
계	71	100.0

5) 평가

이료재활전공과의 시험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29>와 같다. 평가 관련 개선 사항은 평가 내용, 평가 방식, 편의 제공, 평가 활용 등에 대한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단순한 교과서 내용 암기보다는 이료 실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등 평가 내용이 적절해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39.4%로 가장 많았고, ‘과목당 과락 제도를 실시해 이료재활전공과의 학업 성취 수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학생의 요구와 시각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시험 문제지와 답지 작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19.7%였다. 이 조사 결과로 볼 때 이료 교과서의 내용과 이료 실무 현장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단순한 학교 시험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료 처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 제도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9> 이료재활전공과 시험 개선 사항 (N = 71)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생의 요구와 시각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시험 문제지와 답지 작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4	19.7
단순한 교과서 내용 암기보다는 이료 실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등 평가 내용이 적절해야 한다	28	39.4
지필고사 이외에도 과제, 발표, 실습 참여도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9	12.7
과목당 과락 제도를 실시해 이료재활전공과의 학업 성취 수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8	25.4
기타	2	2.8
계	71	100.0

6) 개방형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의 기타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은 <부록 2> Ⅲ-14에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이료교과 수업과 이료교사에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학교와 학생, 학교 교직원과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재활교육의 요구도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시각장애학교 12개교의 이료재활전공과 2019년도 졸업생들의 이료교육 경험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이료재활전공과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12개교의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 2019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이료재활전공과에 입학하기 전 기초재활교육 이수 여부,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이료재활전공과에 입학하여 받은 이료교육 즉, 이료 수업, 이료 교과서, 이료를 학습하는데 사용한 매체 및 이료 평가 매체, 이료 관련 방과후 수업 등에 관한 문항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료재활전공과를 졸업한 후 느끼는 이료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과반수(56.3%)가 이료재활전공과에 입학하기 전 기초재활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 전공과에 입학하였다. 기초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35.0%)가 가장 많았다. 이료재활전공과를 알게 된 경로로는 가족, 친척, 지인의 소개(53.5%)가 가장 많았다. 이료교과 수업은 이료 이론수업과 이료 실기수업을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모두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료교과 수업 경험에 두 가지 이상 응답을 하였다. 이료 교과서는 내용 구성과 기술 방식면에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용 구성에서는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다고 하였지만 교과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되어 있었다(31.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과서 분량이 많고(40.8%) 형식 또한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었다(50.7%)는 의견이 많았다. 외부강사의 이료 관련 방과후 수업과 정규 이료 수업을 비교하는 문항에서는 이료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 유익했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63.6%로 과반수였다.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후 달라진 점, 현재 취업에 미친 이료교육의 영향,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한 만족도, 중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명 시각장애인에게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권유 정도 등의 문항을 통해 졸업생들의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부록 2> Ⅱ-15에 제시한 이료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자유롭게 응답하라고 한 문항에서는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후 비교 문항과 매우 유사한 응답들이 나왔다. 또 <부록 2> Ⅱ-16에 제시한 재학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업 자체, 인간관계, 등하교 및 생활 형편 등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이료재활전공과를 졸업한 후 느끼는 이료교육에 관한 개선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기초재활 관련 과목 편성 여부, 이료 교과서, 이료교과 수업, 평가 등으로 나누었다.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타당성, 수업 연한, 이료교과의 과목 편성과 시간 배당, 추가할 과목 등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이료교과 교육과정을 이료재활전공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이 33.8%였다. 이료재활전공과 수업 연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7%,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1.0%였다. 이료교과 과목 구성 및 단위 배당에 대해서는 실기과목 수와 단위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졸업생들이 77.5%로 가장 많았으며, 이료교과에 추가되기 바라는 과목은 안마원 창업 및 경영 과목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의 기초재활 관련 과목 편성에서는 점자, 보행 및 보조공학 편성에 대한 비율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료 교과서는 편집 형식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내용 선정과 설명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론과목 수업의 개선점으로는 모형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수업과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수업은 실기실습 과목 수업의 개선점으로도 나타났으며, 실기실습 수업 중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할 과목은 안마실습 비중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록 2> Ⅲ-14에 제시한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의 기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료교과 수업과 이료교사에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 또 학교와 학생, 학교 교직원과 학생과의 소통 부재, 이료교육이 아닌 다른 직업재활교육의 요구 등의 응답도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 2019년도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이므로 평가 집단의 폭넓은 객관성 확립을 위해 최근 5~10년 내 졸업한 이료재활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재활교육 및 이료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법리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직업 교육으로서의 이료교육에 적합한 이료교사 양성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직 이료교사, 특수교육 전문가, 정책결정자, 이료임상 전문가, 행정가, 국회의원, 의료인 등 각양 각층의 주체들의 자문과 의견이 들어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구자영 (2002).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의 이료교육 활성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용인.

권요한 외 6명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서울: 학지사.

권인희 (2005).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권인희 (2011).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기창 (2004). **맹학교 이료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용인.

김영일 (2005).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촉진 전략 탐색.** 특수교육저널, 6(4), 537-562.

김영일 (2006). **이료교육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저널, 7(3), 29-47.

김은하 (2010). **1890~1910년대 독립 여선교사 진 페리와 엘렌 패쉬의 교육활동.** 교육문제연구, 37, 1-21.

김종환 (2001). **시각장애학교 고등부 이료교육 지각에 관한 연구: 고등부 학생 및 이료과 교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박병찬 (2007). **시각장애 특수학교 이료과 실기·실습교과의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

박순희 (2014).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박영준 (2014). **이료교육 제도 및 안마업과 보건안마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인식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박영준, 이해균, 김정현, 박중휘 (2014). **시각장애학생, 이료교사, 안마사의 이료교육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시각장애연구, 30(1), 49-69.

박영준 (2015). **시각장애학교 이료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2), 57-74.

박영준 (2016). **이료교사의 맹학교 직업교육 문제점 인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료교육을 중심으로. 장애인고등교육연구, 2(1), 43-61.

박영준, 이해균 (2016). **시각장애학생, 이료교사, 안마사 간의 장애인중심 사회적 기업 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이료업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2(1), 87-108.

오태민 (2010). **한국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

유몽 (2014). **한국과 중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덕순 (2010). **한국과 일본의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비교 연구: 시각장애 고등학교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제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26(2), 93-116.

이영미 (2004). **시각장애학교 전공과 학생의 학점은행제 이료 전문학사 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이애란 (2004). **중도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용인.

이완우, 김종인 (2005). **맹학교 이료용어의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저널, 6(1), 369-399.

이태훈 (2011).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기초재활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계자의 인식 연구.** 시각장애연구, 27(2), 83-106.

이태훈 (2014). **대학에서의 이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이료교육교사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연구, 21(2), 77-97.

이효성 외 3명 (2007).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안정 지원방안 연구: 정당한 편의 제공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 1-128.

임안수 (2010). **한국시각장애인의 역사.**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용춘 (2005). **중도 실명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료 교사 양성 제도 개선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계순 (2007).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의 이료재활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천안.

최성규, 박혜림, 김은정, 구명성 (2014). **시각장애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과정 구성체제와 운영의 관계 연구.** 시각장애연구, 30(4), 255-279

홍영희, 김호연 (2012). **한국과 중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비교.** 시각장애연구, 28(1), 1-2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_ (2019). **국립서울맹학교 규정집.** 국립서울맹학교, 서울.

참고사이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서울맹학교 http://www.bl.sc.kr/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https://csi.welfare.seoul.kr/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www.kbuwel.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index.jsp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 문 지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 졸업생들의 교육 경험 및 개선 방안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시각장애학교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지는 참여자에 관한 기초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8개, 이료재활전공과에서 교육받으면서 경험한 것에 대한 문항 16개 및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의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 1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원이 읽어 주는 질문을 듣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할 경우 다시 읽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전화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해미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

<연락처>
E-mail : dlgoal7710@naver.com
휴대전화 : 010-8475-11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참여자 기초 정보

※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2년제)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시각장애 정도는? (　　)
① 심한 장애(기존의 1~3급)　②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의 4~6급)

5. 귀하가 학습이나 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감각은? (　　)
① 시각(저시력인)　② 청각이나 촉각(맹인)

6. 귀하의 시각장애 발생 시기는? (　　)
① 10대 이전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후

7. 귀하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알고 난 후 장애인등록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　　)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8. 현재 어떤 이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안마시술소 ② 안마원 ③ 헬스키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④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⑤ 기타 직종 취업 ⑥ 진학 ⑦ 미취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경험

※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료재활전공과에 입학하기 전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 보행 등에 관한 기초재활 교육을 받았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1-1로 이동, ‘예’를 선택한 경우 2. 로 이동]

1-1. 기초재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기존에 하고 있던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받을 수 없었다.

② 나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기초재활 교육을 거부하였다.

③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 기초재활교육의 운영 방식이 나 자신에게는 맞지 않았다.

④ 독학으로 터득하여 기초재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⑤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⑥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혼자 받으러 갈 수 없었다.

⑦ 기타(　)

2. 시각장애학교의 이료재활전공과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　　)

①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 ②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③ 가족, 친척 또는 지인

④ 대중매체(방송이나 신문 등) 또는 온라인 매체(인터넷, 유튜브 등)

⑤ 안과병원 등 의료기관　　⑥ 기타 (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이료재활전공과를 다니는 동안 이료교사의 이론과목 수업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이료 분야의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교사의 임상 경험담 형식의 수업이었다.

② 교과서를 모두 읽어주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③ 다양한 기자재와 교구를 적절하게 활용한 수업이었다.

④ 이료 용어의 풀이와 내용 요약 방식의 수업이었다.

⑤ 기타( )

4. 이료재활전공과를 다니는 동안 이료교사의 실기과목 수업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체 증상별 보건 위주의 수업이었다.

② 학교 시험 평가에 맞춰진 전통 안마 술식 위주의 수업이었다.

③ 다양한 유형의 수기 위주에 초점을 둔 수업이었다.

④ 수기요법에서 기본기만 반복하는 수업이었다.

⑤ 기타( )

5. 이료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어떠했습니까? ( )

①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② 안마사가 알아야 할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지만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였다.

③ 안마사에게 필요 없는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④ 안마사에게 필요 없는 이론과 실기를 제시하였고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였다.

⑤ 기타 (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이료 교과서의 분량과 형식은 어떠했습니까? (　　)
① 분량이 적절했고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었다.
② 분량은 적절했지만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었다.
③ 분량이 너무 많았지만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었다.
④ 분량이 너무 많았고 읽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었다.
⑤ 기타 (　　)

7. 이료 과목을 학습할 때 귀하가 주로 사용했던 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점자　② 음성(컴퓨터, 책마루, 녹음기, 대독 등) ③ 일반문자
④ 확대글자 또는 저시력 기구(확대경, 독서확대기 등)을 사용한 일반문자
⑤ 기타 (　　)

8. 이료재활전공과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지는 어떤 매체로 제공받았습니까?
(　　)
① 점자　② 대독　③ 일반문자　④ 확대문자

9. 이료재활전공과 시험을 볼 때 귀하는 답지를 어떤 매체로 작성했습니까?
(　　)
① 점자　② 대필　③ 일반문자　④ 확대문자

10. 이료와 관련된 외부 강사들의 방과 후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예’를 선택한 경우 10-1로 이동,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11로 이동]
10-1. 이료와 관련된 외부 강사들의 방과 후 수업을 들어보았다면 이료교사의 수업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외부 강사의 수업 내용이 이료교육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같았다.
② 외부 강사의 수업 방식이 시각을 많이 필요로 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③ 이료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 유익하였다.
④ 외부 강사가 다루는 내용 수준이 높아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⑤ 이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는 것 같았다.
⑥ 기타( )

11. 이료재활전공과 입학 전과 비교할 때 졸업 후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
③ 이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
④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자존감을 회복하였다.
⑤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⑥ 기타( )

1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료업을 선택하는데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주지 않았다 ② 약간 주었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주었다. ⑤ 매우 많이 주었다.

13. 이료재활전공과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14. 중도 실명자를 새로 알게 되면 이료재활전공과 입학을 권유하시겠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이료재활전공과에 재학하는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6. 이료재활전공과에 재학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이료재활전공과 교육 개선 방안

※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료재활전공과에서는 고등학교의 이료교과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2. 이료재활전공과의 교육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1년으로 줄여야 한다.　② 2년을 유지해야 한다.
③ 3년으로 늘려야 한다.　④ 4년으로 늘려야 한다.

3. 현행 교육과정의 이료교과 과목은 10개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총 105단위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료교과의 과목 수와 시간 배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이론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② 실기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④ 이론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늘려야 한다.
⑤ 실기과목 수와 배당 시간을 늘려야 한다.

4. 이료재활전공과의 교육과정에 추가되기 바라는 과목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　　)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① 이료 관련 외국어 회화　② 안마원 창업 및 경영　③ 환자심리
④ 세계 마사지 실습　⑤ 기타(　)

5. 이료재활전공과에서 점자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②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③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④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⑤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6. 이료재활전공과에서 보행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②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③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④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⑤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7. 이료재활전공과에서 보조공학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②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③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④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⑤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8. 이료재활전공과에서 일상생활기술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②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③ 현재 수준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④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⑤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9. 앞으로 이료 교과서를 새로 개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이료 실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②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③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
④ 전맹과 저시력 등 이료재활전공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제작·보급해야 한다.

10. 이론 위주의 이료 과목 수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해 주는 수업
② 과목별 동일한 교사의 배치로 통일성 있는 수업
③ 모형 자료나 기기 등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는 수업
④ 의학 관련 참고서적보다는 이료 교과서 중심의 수업
⑤ 기타(　)

11. 실기 위주의 이료 과목 수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여러 유형의 수기 위주의 수업
② 수기요법 기본기 중심의 수업
③ 교사의 평가 또는 학교 시험에 맞춰진 수기 중심의 수업
④ 교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 위주의 수업
⑤ 기타(　)

12. 이료교육의 실기실습 중 수업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하는 실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이료 임상 실습　② 침구 실습　③ 안마 실습
④ 마사지 실습　⑤ 지압 실습　⑥ 기타(　)

13. 이료재활전공과의 시험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각하십니까? (　　)

① 학생의 요구와 시각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시험 문제지와 답지 작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단순한 교과서 내용 암기보다는 이료 실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등 평가 내용이 적절해야 한다.

③ 지필고사 이외에도 과제, 발표, 실습 참여도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④ 과목당 과락 제도를 실시해 이료재활전공과의 학업 성취 수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⑤ 기타(　)

14.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이료재활전공과 교육과 관련해 개선되기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방형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Ⅱ-15. 가장 좋았던 점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
-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학문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봉사를 하고 싶어졌다.
- 다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좋았고, 여러 부류의 시각장애인들과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얻기 쉬웠다.
-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 한방 교육을 받은 점이다.
- 여러 부류의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고,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만났다. 또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어 등하교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녔다.
-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좋은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고, 졸업 후 자신이 바뀌었으며, 매우 만족스럽다.
- 안마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새로운 직종을 얻었다.
- 선생님들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 몰랐던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좋은 분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 좋은 추억이 많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 여러 가지 안마 수기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움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아 좋았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였던 것이 좋았다. 또한 시력들이 다양하다 보니 '내 눈은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다.
-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 앞이 안 보였을 때는 집에서만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좋았다.
-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으며,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
-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좋았다.
- 취업에 대한 생각이 생긴 것이 좋았다(취업 기회 제공).
- 손재주가 없었는데 수기를 터득해서 좋았다.
- 동급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학교 축제가 재미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몰랐던 이료에 대해 배운 것이 좋았다.
- 우리 몸에 대해 몰랐던 부분(혈자리 등)을 알아서 좋았다.
- 몰랐던 이료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게 된 것이 좋았다.
-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공부하였다.
-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다. 경증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많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규칙적인 생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의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 안마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 전맹의 입장을 알아서 좋았다.
- 같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접해보지 않은 인체상의 간접적인 것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안마라는 것을 새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모르던 지식을 알게 되어 좋았다.
- 안마를 배우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직접 안마 실습했을 때가 좋았다.
- 선생님이 좋았다.
- 이료를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
- 이료 실기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활발해져서 좋았다.
-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전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되어 좋았다.
- 학교생활이 좋았다.
-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 같은 시각장애인 동료를 만나 같이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께 조언을 얻고 인생의 방향성과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듣게 돼서 좋았다.
-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많다.
-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 이론보다는 안마에 세밀하게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
-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넓어졌다.
- 급우들과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는게 좋았다.
- 임상에 관련된 수업들이 좋았다.
-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냈다.
-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안마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없다.
-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무응답.
- 해부 생리를 배우는 것이 좋았다.
-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어 좋았다.
- 침술을 배운 것이다.
- 점심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자존감 회복이다.
-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다.
- 없다.
-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난 것이다.
-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았다.
- 이론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교과서도 있었다.
- 여러 가지 정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좋았다.
- 기술을 배워 직업을 가지는 동기가 되며 같은 시각장애인들과 정보 교환 및 아픈 점들을 대화로 풀 수 있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대,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졌다.
- 없다.
- 신체 구조에 대해 알게 됨. 근육, 골격, 신경에 대해 많이 알게 됨.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16. 가장 어려웠던 점
- 등교였다.
- 인간관계였다.
- 교육실습 할 때 전맹자다 보니 실습 진행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어려웠고,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 새로운 안마 수기법들을 배우는 것이었다.
- 교우관계였다.
- 안하던 공부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입학할 당시와 졸업할 당시를 비교했을 때 급격한 시력 저하 문제도 있었다.
- 중도 실명이 아닌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 집에서 오냐 오냐 크고 주변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대해주어서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 집이 멀어서 기숙사 생활, 가정과 멀어 힘들었다.
- 시험 답을 점자로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 연령대가 많이 다르다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
- 실기 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이 전맹이어서 자세나 손모양, 수기 요법의 형태를 정확히 인지시켜 주지 못하였다. 저시력의 입장에서 전맹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진도는 계속 나갔고, 잘못된 습관이 고착되었다.
- 없다. 하루가 빨리 가서 아쉬웠다.
- 없다.
- 고난도 교과서였다. 해부학, 한방을 일찍 알았으면 체계적으로 나갔을텐데 어려운 것이라 따라잡기 어려웠다. 같은 반 학생들 중 제대로 배우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배우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전체를 보다보니 배우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다.
- 비장애 일반 선생님들은 시각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비장애 일반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
- 안마 자체를 배우는 것이 어려웠다.
- 연령별로 세대 차이와 다른 사람들과의 성격 차이, 실기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가르쳤던 점이었다. 좋은 반은 많이 가르쳐 주었다.
- 선생님들의 시원치 않은 태도였다.
- 일상생활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고, 수업 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웠다.
- 중도 실명이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배우는 것이 어려웠다(공부 외 모든 것 포함).
- 생활 적응이 어려웠다.
- 시각장애인들이 잘 보이는 사람(자신)에게는 편견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시기 질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공부를 깊이 배우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다.
- 통학이 어려웠다.
- 해부생리가 어려웠다.
- 없다.
- 음성으로 해야하다 보니 접근 용이성이 떨어졌다.
-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교과서를 쭉 읽어주는 과목의 수업을 듣기가 어려웠다.
-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학업에만 집중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 시각장애가 진행되면서 매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도 실명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커 동료 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다.
- 실기하는 것이 어려웠다.
- 눈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키우고 몸에 힘을 빼는 것이 힘들었다.
- 집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했고, 기숙사 생활이 불편했다.
- 사람들 사이의 트러블이었다.
-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 즉 교우관계였다.
- 눈이 나빠짐으로써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 반 우려 반이었다.
-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그 외에 더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웠던 것이 아쉽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안 좋았으며, 기본적인 안마만 하다보니 그 외의 것들을 세부적으로 못 배워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 없다.
-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과의 생활.
- 없다.
-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 학교 안 교실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 생소한 분야라 어려웠다.
- 생활고.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어려웠다.
- 친구관계였다.
- 안마가 새로워서 어려웠다.
- 전문 지식을 중점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 없다.
- 자세나 손동작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서 배우다보니 한계를 느꼈다.
- 어른들과의 세대 차이였다.
- 이론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 안마였다.
- 침관련 된 것을 배우기 어려웠다.
- 대인관계. 시각장애인이 된지 얼마 안 된 분의 고집으로 세상을 보는 것 때문에 대하기 힘들었다.
- 실기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또래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었다.
- 약시인데 전맹과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 인간관계였다.
- 안마 이론을 배우는 것이었다.
-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 통학이 가장 어려웠다.
- 침술이었다.
- 경제생활.
-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다른 학생을 보는 것이었다.
- 책만 읽어주는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것이었다.
- 선생님들의 안 좋은 사고방식,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정안인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 책 보는 것이었다.
-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커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14. 기타 개선 방안
- 학교가 복지관처럼 되어 있어 학생이 학생 신분을 망각하는 것 같아 학교가 학교다웠으면 좋겠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학생 선발 과정을 엄격히 하였으면 좋겠다.
- 전체적으로 학교에 관련 업무 총괄 지휘하는 사람들도 시각장애인이 되어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은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 전맹이 필요한 자료를 점자로 주었으면 하고, 실습을 할 때 담당하신 선생님이 성실하게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이론 수업에서 너무 오래되거나 불필요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론들을 정리해서 요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실습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 또한 과목 중 체육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을 늘렸으면 좋겠다.
- 없다.
- 침구 관련 교육이 형식적이어서 교과서 내용 말고 실기 위주로 자세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실기 실습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흘러갔다.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욕적으로 떨어져서(선생님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없다.
- 8시 40분~3시 40분의 7교시 수업 시간이 너무 길다.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 없다.
- 없다.
- 실무 쪽이 중요한데 교과서만 읽는 수업이 많다. 건의를 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수업이나 학교의 지침 자체가 교사와 학교 위주이다.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 없다.
- 없다.
- 이료재활전공과 같은 경우 안마사를 육성하려고 나온 것인데 안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학생의 경우 좀 더 그 이상을 바라는데 학교에서는 그 이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마사의 길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특수 수업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이론도 좋고 실기도 좋지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1학년 때 실기 선생님이 2학년 때도 바뀌지 않고 동일한 선생님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반을 평가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선생님이라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르쳐줘야 할 수준은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지 않음).
- 선생님들이 너무 책을 읽어주는 쪽으로 하는 것 같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선생님들을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 선생님들의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실기연습을 직접 실제상황에 투입 되서 할 수 있는 실습시간이 준비되면 좋겠다.
- 없다.
- 없다.
-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한다(반복 실습).
- 학교생활 하면서 안마실습 할 때 자유롭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마를 가르쳐 줄 때 너무 학교 위주보다는 풍부한 고급 기술, 노하우를 조금씩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또 임상하러 갈 때 임상도 꾸준하게 시간대를 늘리면 좋겠다.
- 없다.
- 교양보다는 이료 실무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 임상실습을 늘렸으면 좋겠다.
- 체계적인 실습 위주의 수업과 풍부한 임상 실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 이료 과목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 자료 준비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오면 좋겠다.
- 없다.
-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알려주면 좋겠다. 시각장애 특성상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다 배우지 못하는 게 많음. 안마 외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 너무 시간 때우기 식.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무 능력 안 되면 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 정당한 기준이 필요하다.
- 실습 시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 없다.
- 이론 과정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점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ex. 보건법, 병리).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들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 없다.
- 전맹 학생에게 더 효과적으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개선하였으면 좋겠다.
- 없다.
-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고 모르는 게 학생들보다 많다. 선생님들이 이론적인 것을 포함하여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 안마원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갭이 커서 당황스러웠다. 그런 갭을 줄여주면 좋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너무 교재 위주여서 임상 경험을 학생들에게 풍부하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 현장 방문,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다.
- 재학 중 실습을 늘렸으면 좋겠다.
- 없다.
- 이료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분들이 수업을 맡아서 임상 쪽 수업들이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고, 보조기구 하는 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없다.
- 없다.
- 이론보다 실기쪽으로 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다양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평등하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 없다.
-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따라 분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과 중도 실명자가 같은 반일 경우 수업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 교사들이 안마 경험이 풍부하여 노하우를 알려주면 좋겠다. 안마 실습시 근육에 이름을 붙여서 상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들께서 학교에 오셔서 경험, 노하우를 2학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멘토링 제도처럼).
- 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받는다. 청주맹학교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직업재활반과 전공과반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또 선생님들의 편애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좋겠다.
- 없다.
- 없다.
- 무응답.
- 안마, 마사지, 침 등 다양하게 깊이 배웠으면 좋겠고, 치료 안마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 개선된 수업 방식으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
- 실습 위주면 좋겠다.
- 심도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 없다.
- 선생님들이 실력을 개선해야 한다.
- 선생님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 없다.
- 무응답.
- 임상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 여러 용어의 통일이 필요. 교사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 학습이 필요. 그냥 훑고 지나감. 학습자료(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음.
-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 없다.
- 좀 더 체계적인 방과후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